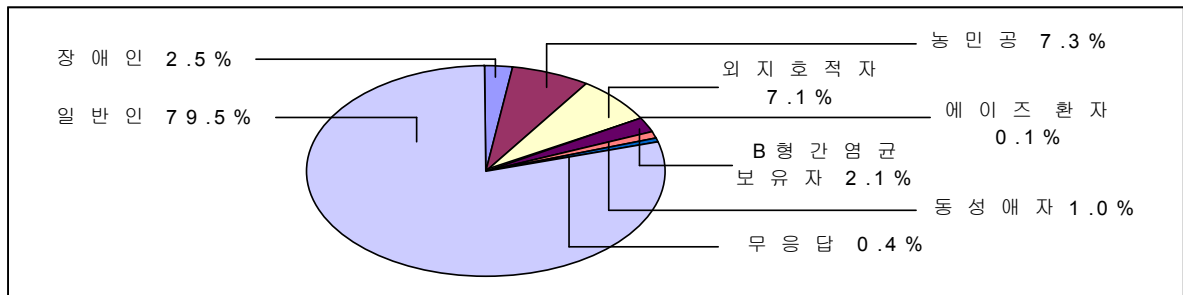


중국 고용차별의 현황과 실태1)

1. 개요

- 중국정법대학 헌정연구소는 2006년 5월과 10월에 중국의 고용차별 현황에 대한 1차 설문조사를 실시
- 본 조사는 베이징(北京), 광저우(广州), 난징(南京), 우한(武汉), 선양(沈阳), 씨안(西安), 청두(成都), 쑹저우(郑州), 인촨(银川), 칭다오(青岛) 등 10대 도시에서 실시되었고, 총 3,500장의 설문지 중 3,454장이 회수됨.
- 본 조사는 반고용차별을 위한 입법과 제도 설립 및 고용기회 평등을 추진하는데 있어 신뢰할 만한 근거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됨.

<그림1> 전체 조사 응답자 분포



1) 经济观察报(2007.7.2) “中国就业歧视现状的可卷调查报告”의 기사를 요약 정리한 것임.

2. 주요 내용

가. 중국의 고용차별은 매우 보편적이고 심각한 수준

- 본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고용차별은 주로 민족, 종교, 정치적 성향, 장애, 호적, 성별, 연령, 건강, 신장 및 외모, 성적 취향 등에 대한 것임.
- 고용단위의 차별적 대우가 모두 고용차별은 아니며 학력, 경력, 자격증, 건강 등에 대한 요구사항은 경우에 따라 합리적임.
- 고용차별 존재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차별이 존재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85.5%로 그 중 50.8%가 매우 혹은 비교적 심각하다고 답했고, 전체 응답자의 6.6%만이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함.
- 구직 중 차별대우를 받았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71.1%에 달하였고, 그 중 15.6%는 심한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함.
- 구직실패의 이유로는 장애, 저학력, 외지호적, 정치적 성향 등의 요인이 각각 21.8%, 18.7%, 18.5%, 3.4%를 차지함.

나. 중국 정부기관의 차별 역시 심각한 수준

- 본 설문조사 결과 공무원 채용시 호적, 장애, 건강에 대한 차별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본 조사에 따르면 공무원 취업에 실패하는 원인으로는 저학력(45%), 외지호적(43%), 장애(40.9%)와 건강 요인(40.7%) 등이 주를 이룸.
- 단, 학력에 대한 요구사항은 반드시 차별이라고 볼 수 없음.

<표1> 아래의 이유로 공무원 시험 응시에서 차별을 받은 적이 있는가?

원인	있음		없음		기억나지 않음	
	응답 건수	비율(%)	응답 건수	비율(%)	응답 건수	비율(%)
여성	168	32.0	334	63.6	23	4.4
장애	47	40.9	58	50.4	10	8.7
외지호적	125	43.0	158	51.8	22	7.2
농민공	64	37.8	113	59.8	12	6.3
연령	85	32.0	168	63.2	13	4.9
외모	39	33.9	66	57.4	10	8.7
저학력	142	45.0	161	50.9	13	4.1
건강	46	40.7	60	53.1	7	6.2
정치적 성향	83	18.4	351	78.0	16	3.6

□ 정부기관에서의 차별은 주로 면접 단계에서 발생

<표2> 차별대우가 어느 시점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하는가? (중복응답가능)

차별대우 시점	응답 건수	전체 응답 중 비율(%)	유효 응답 중 비율(%)
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단계	166	16.1	27.0
면접 단계	406	39.3	66.0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단계	181	17.5	29.4
승진 단계	220	21.3	35.8
퇴직 단계	60	5.8	9.8
총 응답건수	1033	100.0	168.0

주 : 유효 응답지 615장, 무효 응답지 2,839장, 전체 응답지 3,454장

□ 공무원 채용에 있어 가장 불합리한 차별은 성별(67.7%), 호적(66.3%), 신장(59.8%), 외모(47.4%), 정치적 편향(41.6%)에 대한 차별로 조사됨.

- 반면 기업 채용에 있어서는 호적(67.2%), 성별(63%), 신장(54.5%), 정치적 편향(53.4%) 순으로 불합리하다고 답함.

- 응답자들은 학력(80.7%), 건강(59.8%), 연령(47.9%)에 대한 요구사항은 비교적 합리적이라고 답함.

다. 중국 고용차별의 특징

- 본 설문조사에서는 장애인, 에이즈 환자,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가 차별에 가장 많이 노출된 것으로 나타남.

<표3> 차별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그룹은? (중복응답가능)

	응답 건수	전체 응답 중 비율(%)	유효 응답 중 비율(%)
여성	966	6.7	28.5
장애인	2,224	15.4	65.6
외지인	1,177	8.2	34.7
농민공	1,524	10.6	45.0
외모 열등자	1,253	8.7	37.0
에이즈 환자	2,129	14.7	62.8
동성연애자	904	6.3	26.7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	1,839	12.7	54.2
저학력자	1,644	11.4	48.5
40세 이상인 자	726	5.0	21.4
고용차별 없음	50	0.3	1.5
총 응답건수	14,435	100.0	425.8

주 : 유효 응답지 3,390장, 무효 응답지 64장, 전체 응답지 3,454장

□ 건강에 대한 차별의식이 가장 심각

- ‘당신이 고용주라면 어떤 사람을 고용하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3%가 에이즈 바이러스 보유자를, 55.8%가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를, 52.5%가 성병 환자를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함.
- ‘당신은 에이즈 환자, 성병 환자, B형 간염 환자와 함께 일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각각 52.5%, 51.6%, 49.3%의 응답자가 부정적인 답변을 함.

□ 중국인이 가장 반대하는 차별은 성차별과 신분차별

- 신분차별에는 호적차별, 본적차별, 장애인차별 등이 포함되며, 건강과 동성애에 대한 차별을 반대하는 응답자가 가장 적음.

<표4> 사회의 각종 차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매우 나쁨(%)	나쁨(%)	보통(%)	좋음(%)	매우 좋음(%)	모름(%)
성차별	29.8	39.3	21.6	4.3	1.2	3.9
장애인차별	26.2	44.6	21.0	3.1	0.6	4.5
연령차별	18.2	42.1	31.5	3.8	0.9	3.4
신장차별	18.1	39.9	31.9	5.1	1.1	4.0
외모차별	17.7	37.8	33.5	5.6	1.4	4.1
학력차별	17.2	37.7	32.7	7.8	1.3	3.2
호적차별	26.4	39.3	23.8	4.6	1.4	4.4
본적차별	26.2	35.6	24.1	6.1	2.4	5.5
건강차별	12.3	32.4	37.8	10.5	2.4	4.5
동성애차별	14.0	30.7	24.8	8.0	4.1	18.5
경력차별	17.0	39.4	30.5	6.2	1.7	5.2
정치편향성차별	22.7	31.4	27.3	6.7	3.4	8.5

라. 성차별과 농민공차별 관련 내용

- 본 조사에 따르면 기업이나 고용주가 채용조건으로 남성채용을 명시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13.9%, 여성채용을 명시했다는 응답은 7.1%, 남녀 모두 채용은 32.2%, 명시하지 않았음이 46.7%로 나타남.
- ‘여성 구직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이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는 외모(70.1%), 학력(67.2%), 대인관계능력(60.7%) 순으로 답한 반면, 여성 응답자는 학력(72.6%), 외모(70.3%), 대인관계능력(64.8%) 순으로 답함.
- 기혼 여성과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존재함(<표5> 참조).

<표5> 고용계약시 고용주가 결혼과 출산에 관련된 제약을 두었는가? (여성만 응답)

결혼출산 관련 제약		응답 건수	유효 응답 중 비율(%)
유효 응답	없음	1,299	84.6
	구두 명시	183	11.9
	서면 명시	54	3.5
	소계	1,536	100.0
무효 응답	소계	1,918	
총계		3,454	

- 농민공은 취업시 여러 부문에 걸쳐 각종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6> 참조).

<표6> 어떤 면에서 정식 직원보다 열등한 대우를 받는가? (농민공 응답)

	응답 건수	전체 응답 중 비율(%)	유효 응답 중 비율(%)
종사 업종 제한	145	12.1	35.3
업무 배치	349	29.0	84.9
업무 및 주거환경 열악	369	30.7	89.7
급여	149	12.4	36.2
의료 및 상해 보장	115	9.6	27.9
노동계약 내용	27	2.2	6.6
계약기간 및 훈련	35	2.9	8.5
기타	14	1.2	3.4
총 응답 건수	1,203	100.0	292.7

주 : 유효 응답지 411장, 무효 응답지 3,043장, 전체 응답지 3,454장

- ‘농민공에 대한 차별이 당연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답한 농민공은 35.4%이고, 부당하다는 답변이 64.6%에 달함.

- ‘차별대우를 받으면 어떻게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다수의 농민공(64.8%)은 불평만 할 뿐이라고 답했으며 35.2%의 농민공은 용납할 수 없다고 답함.

마. 고용차별에 대한 인식과 태도

□ 대다수 응답자는 고용차별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력이 있고(<표7> 1번), 평등한 취업기회가 법적 권리임을 인식하고 있음(<표7>, 5번).

- 반면, 많은 응답자가 구체적인 차별 현상에 대해서는 혼돈하는 경향을 보임(2, 3, 4번).
- 고용차별의 원인에 대해 응답자의 69.4%가 노동력 공급과잉, 46.6%가 사회보장체제 미비, 45.7%가 효율우선주의의 영향이라고 답함.

<표7> 아래의 설명에 동의하는가?

	매우 동의(%)	동 의 (%)	반 대 (%)	매우 반대(%)	모 름 (%)
1. 능력, 기술, 체력 면에서 충분히 채용이 가능하나 외모, 호적, 학력, 장애, 연령, 성별 등을 이유로 채용을 기피하는 것은 차별이다. 직업이나 지위 자체가 특수한 경우는 제외.	31.0	52.9	10.8	1.4	3.9
2. 질병, 장애, 연령, 학력, 호적, 성별, 외모 등이 정상적인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고용주는 채용 거부나 해고에 대한 권리가 있으며, 이것은 기업의 고용 자주권이 지 차별은 아니다.	13.2	45.6	29.4	5.8	6.0
3. 고용단위는 업무효율이나 회사 이미지를 고려하여, 건강하고 용모가 빼어나며 기술을 가진 사람을 전형할 권리가 있다.	21.6	57.8	13.6	1.8	5.1
4. 젊고 건강한 대학생의 취업도 어려운데, 왜 나이가 많거나 병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 또는 저학력자를 고용해야 하는가?	5.9	19.7	47.9	13.6	12.9
5. “평등한 취업”은 법이 국민에게 부여한 노동권으로, 고용단위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45.2	41.6	6.5	0.8	5.9

<참고 자료>

《经济观察报》, “中国就业歧视现状的问卷调查报告”, 2007.7.2